

## 사멸(死滅)해가는 민족문헌(民族文獻)

도서문화재(圖書文化財)의 적(敵)은 전쟁(戰爭)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의 철저한 무관심(無關心)과 의식적(意識的)인 소외(疎外)만이 과거(過去)의 모든 문적(文籍)을 이땅에서 도살(屠殺)해버린 직접 원인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민영규(閔泳珪)

一,

「우리 나라엔 예로부터 전쟁이 잦았다. 우리 나라에서 고서라고 일컫는 것을 보면 대개가 근세(近世) 임진란(壬辰亂) 이후의 것이고, 그 이전의 것은 참으로 드물다. 무수한 전쟁을 겪는 동안에 귀중한 문헌들이 전쟁의 피해를 입고 탕진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마해서 우리 나라에 오랜 문헌이 직접 전하지 못하게 된 까닭인즉 그만큼 전쟁이 잦았고 전쟁의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라고 해서 극동 삼(三)국이나 구라파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특히 전쟁이 잦았었다고 보아야 할 이유도 없지만, 오랜 시대의 문헌들이 자취를 감추고 얻어 볼 수 없게 된 책임을 모두 전쟁에 돌리고 말려는 괴상한 논법(論法)은 기실(其實) 성호(星湖) 선생 이래 우리 나라 서지(書誌)에 관심을 둔 모든 학자(學者)들이 한결같이 주장해 오던 전통적인 사고방법이기도 했다.

고(故) 석남(石南) 목석하(木錫夏)선생은 한국서지학회(韓國書誌學會)를 일으킨 이 방면의 대선달(大先達)이었으며, 끼친바 공헌도 크신 분이었지만, 일찍이 「한국(韓國)의 현재악보(現在樂譜)」라는 논문에서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서두해 있다.

「한국(韓國)의 서지학(書誌學) 연구가는 아득한 신라시대(新羅時代)는 그만 두고라도, 고려 이후의 시대로 들어서 가장 큰 수난기(受難期)를 세 번 겪었다. 그 하나는 고려(高麗) 고종(高宗) 때의 몽고(蒙古)의 입구(入寇)이고, 그 둘째는 고려말 즉 중국에 있어서의 원(元)·명(明)의 교체에 따른 홍건적(紅巾賊)의 난입(亂入)과 이씨왕조(李氏王朝)로 넘어가는 동안의 혼란(混亂)이며, 마지막으로 셋째는 이씨조선(李氏朝鮮) 선조(宣祖) 때 임진(壬辰)·정유(丁酉) 이전에도 현종(玄宗) 때 계단의 입구가 있어서 고려중기(高麗中期) 이전(以前)의 모든 문적(文籍)은 이 두 전란을 겪는 동안에 탕진되었고, 그 이후의 새로운 문적(文籍)들은 여말(麗末)과 이조(李朝) 초(初)에 산일되었다. 가까스로 건져진 잔해(殘骸)가 있었다면 그나마도 임진(壬辰)·정유(丁酉)의 전란(戰亂)에서 거의 전멸(全滅)하다싶이 되었다. 그러므로, 고려(高麗) 고종(高宗) 이전(以前)의 문적(文籍)으로는 대안오년(大安五年) 기사(己巳)(一〇八九) 해인사판(海印寺版)의 천태사교의(天台四教儀)(고려대학교도서관 장) 외에 수점(數點)이 있을 따름이고, 중기(中期) 이후의 것으로는 대장도감판(大藏都監版) 외엔 극히 적은 수요가 헤아릴 수 있는 정도다. 더구나 사본(寫本)에 이르러서는 원천석(源泉錫) 자필본(自筆本) 운곡행록(雲谷行錄)(고려대학교 도서관 장) 한 책이 남아 있을 뿐이다. ... 그래서 서지학자(書誌學者)는 선조조(宣祖朝) 임진(壬辰)·정유(丁酉)의 란(亂)(一五九二--一六〇〇) 이전의 판본(板本)이고 보면 무엇이든 희귀본(稀貴本)으로 다루고 있는 형편이다.」

고(故) 석남(石南) 선생이 이 글을 일본문(日本文)으로 된 어떤 기념논총(紀念論叢)에 발표한 것은 一九四三年의 일이었으므로 그 동안에 겨우 二十數年, 짧은 세월이 경과한

사이런만, 오늘날에 와서 다시 이 글을 읽어볼 때 실로 격세(隔世)의 느낌을 금(禁)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 사이에 六·二五동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석남(石南)선생이 대장도감판(大藏都監版)으로 소개한 것은 정녕 순천(順天) 송광사장열반경소(松廣寺藏涅槃經疏)를 가리킨 것이 분명하나, 동란 중에 말끔히 불에 태워버렸고, 천대사교의(天台四敎儀) 역시 동란중에 행방불명(行方不明)이 되고 말았다. 六·二五동란이 남기고 간 자국은 실로 우리 나라 고문적(古文籍)의 보존에 있어 결정적이고도 치명적인 상처가 되어 주었던상 싶다.

## 二

이 글을 쓰고 있는 나역시 한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고문적(古文籍)의 적(敵)은 곧 전쟁(戰爭)이며, 고문적(古文籍)이 전존(傳存)치 못하는 책임도 곧 전쟁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어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 민족의 보람과 능력을 증명해 줄 막중한 가치의 문헌들을 보존하지 못하는 책임은 그때 그때의 전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의 이에 대한 무관심에 있다. 결코 전쟁 자체가 고문적(古文籍)을 절멸시키는 정면(正面)의 적(敵)이 될 수 없다. 민족의 이에 대한 외면(外面)과 무관심(無關心)만이 그들 자체의 귀중한 문적(文籍)들을 파멸(破滅)로 이끄는 결정적인 적일 수밖에 없다.

절멸(絶滅)의 위기(危機)에서 그것을 건져보겠다는 굳건한 의사(意思)만 가졌던들 六·二五 동란은커녕 그보다 몇곱절 모진 전쟁이 이 땅을 휩쓸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너그러워 건져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끝내 그러한 意思의 발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말았다. 동란이 멈춰진지 어느덧 십수년(十數年)으로 접어들었지만 고문적(古文籍)의 산실(散失)과 판탕(板蕩)은 오늘 현재에 이르러서도 멈춰질 날이 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가속(加速)되어가고 있는 느낌도 있다.

## 三

六·二五동란이 시작되던 무렵의 이야기는 말하지 말고라도, 그해 겨울 두 번째로 서울을 비워주고 남쪽으로 쫓기기에 바빴을 무렵, 우리는 무수한 트럭들이 줄을 짓고 남쪽 부산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몇 주일 동안 계속된 이들 트럭의 행렬(行列)의 대개는 高官大爵들의 살림가구로 채워져 있었으며, 때로는 군용(軍用)트럭답지 않게 화사한 경태(鏡台)며 장작더미까지 실려져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때 정부(政府)로부터 고문적(古文籍)의 소개(疏開)를 위해서 배치된 트럭은 모두 팔태(八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중에 오(五)대는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奎章閣圖書)를 위해서였고, 나머지 삼(三)대는 국립도서관 소장(所藏)의 귀중도서(貴重圖書)를 위해서였다. 규장각도서(奎章閣圖書)가 오(五)대의 트럭 덕분에 부산까지 소개된 것은 겨우 九,〇〇〇책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의 규장각도서(奎章閣圖書)는 서고(書庫)에 남겨진 채 그대로 버려질 수밖에 없었다. 국립도서관에서 삼(三)대의 트럭으로 부산까지 소개한 「귀중도서(貴重圖書)」란 귀중도서 아닌, 이조실록경인본(李朝實錄景印本)과 각종 백과사전류(百科辭典類)였다. 당장에 불살라 없애버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그러한 책들로만 채워져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두가지 교훈(敎訓)을 발견한다. 국가의 운명은 물론, 민족의 능력과 보람을 증명해 줄 수십만권(數十萬卷) 문적(文籍)의 운명이 결정되는 무서운 찰나(刹那)에 대처해서 이때 정부당국이 취한 태도가 과연 만족스러운 것이었던가가 그 하나다. 다른 하나는 도서관인(圖書館人)으로서의 자격과 반성의 문제다. 이때 국립도서관이 보여준 당황한 처사는 뒷날 두고두고 심각한 반성의 자료가 되어주어야 할 것이다.

비단 도서문화재(圖書文化財)에서 뿐일까만은, 군작전(軍作戰)의 면에 있어서도 문화재(文化財)의 만전(萬全)한 보호를 위해서 우선적이고도 필요한 조치가 진작 강구되어야 했다. 월정사(月精寺)에 비장(秘藏)되어 내려오던 막대한 량의 문적(文籍)들은 한번도 이렇다할 조사가 이뤄짐이 없이 숙제(宿題)로 남겨져 있었던 것인데 하루 아침의 포화(砲火)로 불살라 없어졌고, 희방사(喜方寺) 월인석보(月印釋譜) 판목(板木)도 「유엔」군에 의한 작전상(作戰上)의 이유(理由)로 애써 휘발유를 뿌려가면서까지 화장(火葬)해 버리고 말았다. 빈대를 잡기 위해서라면 법당(法堂)의 하나 들 쯤 불살라 없애버린들 무엇이 아까울 것이 있겠느냐는 식이다. 소백산맥(小白山脈) 지대(地帶)로 들어서면 산야(山野)의 여기 저기에 국보급(國寶級)으로 지목될 석조불상(石彫佛像)들이 흩어져 있지만 모두 탄흔(彈痕)도 새로운 총탄(銃彈)의 세례를 받고 있었다. 적진(敵陣)과의 대결(對決)에서 얻은 탄흔(彈痕)이 아니다. 총을 가진 사람들의 사격연습(射擊練習)을 위한 과녁이 되어준 때문의 그것이었다.

오늘날 국가(國家)의 법령(法令)에 따라 보물(寶物)의 대우를 받고 있는 고문화재(古文化財)의 대강을 분류해 볼 때, 아예 땅 속에 묻혀서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았든가, 숫제 못 쓸 물건인줄 알고 산야에 내버려진 석조물(石彫物) 등에서 얻어진 것이 많다. 조금이라도 다른 용도(用途)를 찾아 쓸모가 있는 것이었다면 진작 깨뜨려져서 들락의 섬들이던가, 내 조상 산소를 위한 받침들로 형태가 바뀌져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귀중한 것이니 꼭 보존되어야겠다는 어떤 자각(自覺)이나 의사(意思)가 가(加)해져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원래의 모습을 지탱하고 있는 문화재(文化財)란 중세(中世)나 상세(上世)로 시대가 올라 갈수록 더욱 드물어진다.

#### 四,

영남(嶺南)의 어떤 유서 깊은 서원에서 목도(目睹)한 사실이지만, 이조(李朝) 전기(前期) 활자본(活字本)을 수십책(數十冊) 뜯어 도배지로 발라놓고 있었다. 시장에서 도배지를 사 들일만한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음을 나도 물론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대용품(代用品)으로 뜯어 쓰고있는 고풍자(古活字)의 한 장 한 장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막중한 것임을 서원을 지키는 유사(有司)들조차 알아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답답하다. 이러한 서원이나 지방의 구가(舊家)일수록 수천권(數千卷) 귀중한 도서문화재(圖書文化財)는 도배지로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시전(詩箋)·서전(書傳) 따위 쓸모 없는 사서삼경(四書三經)의 대문(大文)만은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놓쳐서는 아니 된다고 눈물겨운 자기 희생의 보람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오늘 현재 서울에서 통용되고 있는 고지시세(古紙時勢)가 또 얼마만큼 변동되었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도 관당(貫當) 오권(五卷)으로 매매(賣買)되고 있었다. 고서(古書) 열책을 저울에 달아서 한 관(貫)에 될 정도이므로 고서(古書) 한책의 평균 가격은 오(五)원꼴이 된다. 이들 고서(古書)가 모두 시전(詩箋) 서전(書傳) 따위라면 다시 문제삼을 것이 못되지만, 반드시 모두 그럴 수는 없다. 가다가 만력(萬曆) 이전의 고서(古書)가 그 중에서 튀어 나오기도 하고, 더욱 난처스러운 일은 고일기(古日記)나 미처 간행을 보지 못한 고사본(古寫本) 등속이 관당(貫當) 얼마로 고지상(古紙商)들에게 팔려 넘겨가는 수가 많으니 걱정이다. 사백년(四百年) 남짓 계속해서 시골 어떤 명문(名門)의 사당(祠堂)에 간직되어 오던 간찰(簡札)과 언찰(諺札) 수백관(數百貫)이 마차에 실려 시장(市場)에 나온 일도 있었다. 자손(子孫)된 도리(道理)로 다 한다는 것과 급전(急轉)하는 세파(世波)를 이겨 나간다는 것과의 두가지 겸전(兼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부담이었던가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다. 전쟁이 민족문헌(民族文獻)의 수호(守護)에 파괴(破壞)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경제적(經濟的)인 파탄(破綻)이 강요되고 올바르게 수습되지 못한 데에서만 가능한 문제일 것이다.

五,

이렇게 해서 서울로 올려진 벽지의 고문적(古文籍)들은 관당(貫當) 얼마로 넘겨지기 전에 대학도서관(大學圖書館)이나 그밖에 이름있는 도서관으로 찾아다니며, 좀더 나은 절가(折價)를 얻어볼까 하고 가냘픈 희망을 걸어본다. 그러나, 이들 도서관의 대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고서(古書)에 흥미가 없으며, 십중팔구(十中八九) 문전(門前)에서 거절 당하고 만다. 관당(貫當) 오십(五十)원도 비싸다는 것이다. 해마다 조금씩 빛깔을 달리해서 출판되어 나오는 비싼 값의 Anthology들—지능지수(知能指數)가 저급한 미국(美國)의 초급학년(初級學年)에서나 쓰일지 모를 을긋 불긋한 책들을 대학도서관(大學圖書館)의 서가(書架)에 꽂아 놓고서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형편이고 본즉 피죄 죄한 고문적(古文籍) 따위는 첫째로 미관상(美觀上) 좋지않다. 불멸(不滅)하기조차 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나라 고문적(古文籍)은 그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채 고지상(古紙商)의 손을 거쳐서 제지소(製紙所)로 옮겨가고, 나전칠기상(螺鈿漆器商)들에게 팔려간다. 하루도 쉬는 일이 없이, 어제도 그러했고, 오늘도 그러하고, 그리고 내일도 역시 그러할 것이다.

六,

고문적(古文籍)의 사멸(死滅)의 전쟁에 그 직접적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민족의 이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평범한 진리에 속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 평범한 진리를 내가 더욱 간절하게 느낀 것은 어쩌다가 내가 고대(古代) 서방세계(西方世界)에 있어서 초기(初期) 기독교 고나계문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전승되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의심(疑心)을 품고 이방면 연구를 섭렵(涉獵)하면 서였다. 기독교 문화는 그 뒤의 서방세계(西方世界)에 크게 영향한바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 이전의 희랍(希臘)·라마시대(羅馬時代) 문명(文明)을 도살(屠殺)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왔다. 희랍(希臘)·라마(羅馬)의 전적(典籍)이 열에 하나, 스물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도살(屠殺)되어버린 데엔 결코 전쟁이란 폭력수단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다. 기독교로 말미암은 일체 이질적(異質的)인 것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인위적인 전승이 두절(杜絕)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중국의 제지술(製紙術)이 서방(西方)에 전파되기까지 고대(古代) 서방세계(西方世界)에서 고자(古字)를 기록하는 바탕으로 「파피루스」와 양피지(羊皮紙)가 널리 그리고 오랜 동안 사용되고 있었다. 「파피루스」란 원래 나일강변(江邊)에 야생(野生)하는 우리 나라 「왕골」과 같은 수초다. 이 왕골과 같은 수초(水草)의 속을 벗겨서 종이처럼 압착해서 만든 것도 역시 「파피루스」란 이름으로 불리워졌다. 「파피루스」나 양피지(羊皮紙)는 중국이나 우리 나라 종이처럼 수명(壽命)이 길지 못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탄력(彈力)을 잃고 책으로서의 구실을 하지못하게 됨으로 그 수명(壽命)이 다 하기 전에 도 다른 새로운 「파피루스」나 양피지(羊皮紙)에 전사(傳寫)해 두어야 한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전사(傳寫)를 거듭해 가는 방법만이 이왕의 전적(典籍)을 후세에 전하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전적(典籍)의 필사(筆寫)엔 또 하나의 공덕(功德)이 있었다. 수요자(需要者)의 요구(要求)가 많아짐에 따라서 상업(商業)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대(古代) 희랍(希臘)에선 진작부터 Scriptoria란, 필사공장(筆寫工場)과 같은 것이 도회지(都會地)마다 서 있어서 일반의 수요에 응하고 있었다. 필사(筆寫)는 대개 노예(奴隸)의 소

임(所任)이었다. 「유리어스·케에사르」 당시 애급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圖書館)엔 七〇萬卷의 장서(藏書)가 수장(收藏)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七〇萬卷의 장서(藏書) 하나 하나의 필사(筆寫)를 얻어 내기도 어렸웠으려니와, 또한 그만한 량(量)의 장서(藏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듭 거듭 중사(重寫)해 내는 일은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도서관마다 전속의 필사공장(筆寫工場)을 두고 천백(千百)을 헤아리는 노예(奴隸)들이 이 일을 위해서 종사하고 있어야만 했었을 것도 물론이다.

라마(羅馬)의 「콘스탄틴」 대제(大帝)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은 서력(西曆) 기원(紀元) 후(後) 사세기(四世紀) 전반기(前半期)의 일이다. 이 때로부터 사정은 차차로 달라졌다. 오랜 역사를 통해 내려 오던 필사공장(筆寫工場)과 대도서관(大圖書館)은 차차로 문을 닫게 되고, 전날의 필사공장(筆寫工場)의 구실은 승원(僧院)이 맡게 되었으며, 필사(筆寫)의 공정(工程)도 노예(奴隸)로부터 승려(僧侶)의 손으로 옮겨져 가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기독교 관계 이외의 도서가 소외(疏外) 당할 것은 상상키 어려운 일이 아니다. 끊임없는 중사작업(重寫作業)을 거듭해 감으로써만 수명을 유지해 갈 수 있었던 희랍(希臘)·라마(羅馬)의 고전들이 필요한 중사작업(重寫作業)이 중단될 때 자연사멸(自然死滅)코 말 것은 뻔한 사실이다.

희랍(希臘)·라마(羅馬)의 전적(典籍)들이 이렇게 해서 사멸(死滅)의 비운(悲運) 속에 자취를 감춘 것은 서력(西曆) 기원(紀元) 후(後) 사세기(四世紀) 말(末)에서 오세기(五世紀) 초(初)에 이르는 동안이었다고 한다. 실로 잠간(暫間)사이다. 물론 오늘날에 있어서도 희랍(希臘)·라마(羅馬)의 고전(古典)이 약간 남아 있기는 한다. 그러나 그것은 열에 하나, 스물에 하나도 되지 못하는 미미(微微)한 숫자다. 「아이스큐러스」의 비극(悲劇) 일곱 개 작품은 七〇개 작품 중에서 어렵게 살아 남은 것이고, 「소포클레스」의 경우 百十三個 작품중에서 겨우 역시 일곱 개가 살아 남아 있을 따름이다. 이렇게 해서 살아 남은 작품을 어떤 필연성에 의(依)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단순한 우연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 나라 대학도서관(大學圖書館)과 국가도서관(國家圖書館)의 대부분이 우리의 고문적(古文籍)에 대한 어떤 뚜렷한 견식(見識)을 가져봄이 없이 단순한 무관심 속에 소외(疏外) 당하고 있는 현상임을 생각할 때 실로 몸서리치는 것이 있음을 금하지 못한다.

七,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문적(文籍)이 부(富)한 나라로 알려져 있었다. 바다 건너 일본(日本)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웃의 중국(中國)에서도 자기 나라에서 얻어보기 어려운 책이 있으면 사신(使臣)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구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남송(南宋)의 소동파(蘇東坡) 같은 이는 조정(朝廷)에 건의하기를 「만일에 요즘처럼 송(宋) 나라 문적(文籍)이 고려(高麗)나라로 무역(貿易)해 나가는 것을 그대로 두고만 보고 있다가 언젠가 중국 땅에서 책이란 책의 씨도 얻어보지 못하게 될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라고 극언(極言)해 있다. (속자치통감장편(續資治通鑑長編))

고려조(高麗朝) 일대를 통해서 우리 나라는 극동(極東) 삼국(三國)에서도 문적(文籍)이 부(富)하기로 일등가는 나라였건만, 오늘날에 와서 사정(事情)은 달라졌다. 문적(文籍)이 가장 빈곤(貧困)하기로 일등가는 나라가 되고만 것이다.

언필칭(言必稱) 우리 나라를 가리켜 반만년(半萬年) 역사라고 자랑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最古)의 역사서(歷史書)란 고작해서 십이세기(十二世紀)때 만들어진 김부

식(金富軾)의 삼국사기(三國史記)가 있고, 십삼세기(十三世紀) 때 일연선사(一然禪師)의 삼국유사(三國遺事)가 남아있을 뿐이다. 문적(文籍)이 부(富)하기로 극동(極東) 삼국(三國)에서 미망(□望)을 받아 오던 그 많은 전적(典籍)의 유산은 그러면 어찌 되었다는 것일까.

물론 그 책임을 전쟁에 돌리려고 할 것이다. 무수했던 외부세력의 침노가 그 많은 전적(典籍)을 판탕(板蕩)해 버리고 말았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대답도 아니려니와 사실에 있어서 그러했던 것도 물론 아니다. 고려초기 계단(契丹)의 입구(入口)나 중기(中期)의 몽고(蒙古)의 입구가 우리 나라 전적(典籍)의 보존에 어느 정도의 손상을 가져왔을 것은 물론 사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의 손상이 모든 전적(典籍)의 탕진으로 표현될만큼 치명적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에 반비례(反比例)해서 더욱 왕성한 전적(典籍)의 부흥운동이 간난(艱難)했던 방어전(防禦戰)의 수행도상(遂行途上)에서도 활방하게 전개(全開)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고려(高麗) 강화정부(江華政府)의 조판사업(彫板事業)과 활자인쇄(活字印刷)의 개탁(開拓) 등이 그것을 증명한다.

고려(高麗) 일대(一代)를 통해서 풍만했던 전적(典籍)의 유산이 탕진되고만 데엔 전쟁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고려(高麗) 말(末)로부터 이조(李朝) 초기(初期)에 걸쳐서 그 병폐가 짝트기 시작한, 우리의 과거 문화유산에 대한 의식적인 소외(疏外)와 무지(無智)에서 발단된 무관심의 연속만이 전날의 모든 전적(典籍)을 도살해 버린 결과가 되고 만 것이다. 주자학(朱子學) 일변도주의(一邊倒主義)가 이에 크게 관여했을 것은 물론이다.

중국문명(中國文明)과 서방세계문명(西方世界文明)의 접경지대(接境地帶)였던 존황(□煌)의 석실(石室)에서 금세기(今世紀)에 들어 원칙(圓則)과 혜초(慧超)와 의적(義寂) 등 신라 학문승(學文僧)들의 저술(著述)이 발견되고, 그리고, 또 바다 건너 일본(日本)에서도 역시 오랜 옛날부터 신라 학문승(學文僧)들의 저술(著述)이 무수하게 보존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도, 일찍이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소식이 들려 나온 적은 없다. 우리는 우리 조상의 문적(文籍)마저도 지킬중 모르면서 반성할 날이 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다. 부끄러운 일인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필자(筆者)·연세대(延世大) 교수(教授))

## 선사학(先史學)

사전학(史前學)이라고도 한다. (선사고고학(先史考古學)) 인류가 출현하여 이미 문화를 창조하고 있어도 더욱 문헌이 존재하지 않는 선사시대를 연구하는 종합적 학문이다. 원사고고학(原史考古學) 역사고고학(歷史考古學)과 달리 유물, 유적 뿐으로서 고구(考究)를 계속(繼續)할 수 있는 고고학(考古學)에 있어서 가장 순수한 분야이다. 그러나, 연구사에는 여러 가지 다른 부분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선사시대(先史時代)의 환경과 지역성의 특색을 연구하면 선사지리학(先史地理學)이고, 선사시대(先史時代)의 인류, 즉 화석인류(化石人類)의 연구는 선사인류학(先土人類學)이 된다. 기타 지질학(地質學) 동식물학(動植物學)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특히, 선사시대(先史時代)에 속하는 홍적세(洪績世)는 지질년대(地質年代)로서는 제사기(第四紀)에 해당하는 고로 선사학(先史學)은 제사기학(第四紀學)의 일부라고도 할 수 있으나 통상(通常)은 인류문화(人類文化)가 주체가 되고 그것에 얽힌 환경과 문화를 연구하는 면(面)에 한정된다.

선사학적(先史學的)인 연구의 기원은 오래나 본격적인 연구는 一八六五年에 영국의 “존라보구”가 구석기시대(舊石器時代)의 독립을 인증(認證)한 다음부터이고 이후 자연 환경과의 교섭측면(交涉側面)이 많은 구석기시대(舊石器時代)와 다음의 중석기시대(中石器時代)의 연구가 선사학(先史學)의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었다.